

◎ 산림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 1) 공익법인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
 - 임업기술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임업기계의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연휴양림의 설치·운영사업
- 2) 임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융자 또는 보조 세부내용을 명확히 함.

- 이와함께 산림청은 '95년을 산림행정 개혁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기구와 인력, 산림관계 법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전국토의 65%인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는 물론, 1차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임업을 이용·가공·유통·휴양서비스 등 2~3차 산업으로 끌어올리고 국토종합 개발계획과 연계시켜 산림·산주·산촌이 공존하는 광역 산림권 형성을 통한 임업의 산업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복 50년 미래 50년 우리나라 산림의 변화모습

◎ 광복 50년

- 산림청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황폐된 우리나라 산림의 녹화과정과 기반조성기등을 조명해보고 미래의 우리나라 산림의 모습을 발표했다.
 - 특히 산림청은 산림황폐기와 치산녹화기, 기반조성기로 분류하여 우리산림의 실태를 소개하고 2040년의 우리나라 산림의 변화 모습에 대한 주요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1. 산림황폐기 (1953 이전)
 - 조선시대까지 울창하였던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일제의 수탈, 8. 15 해방과 6.25 동란등 사회혼란기를 거치면서 국도로 황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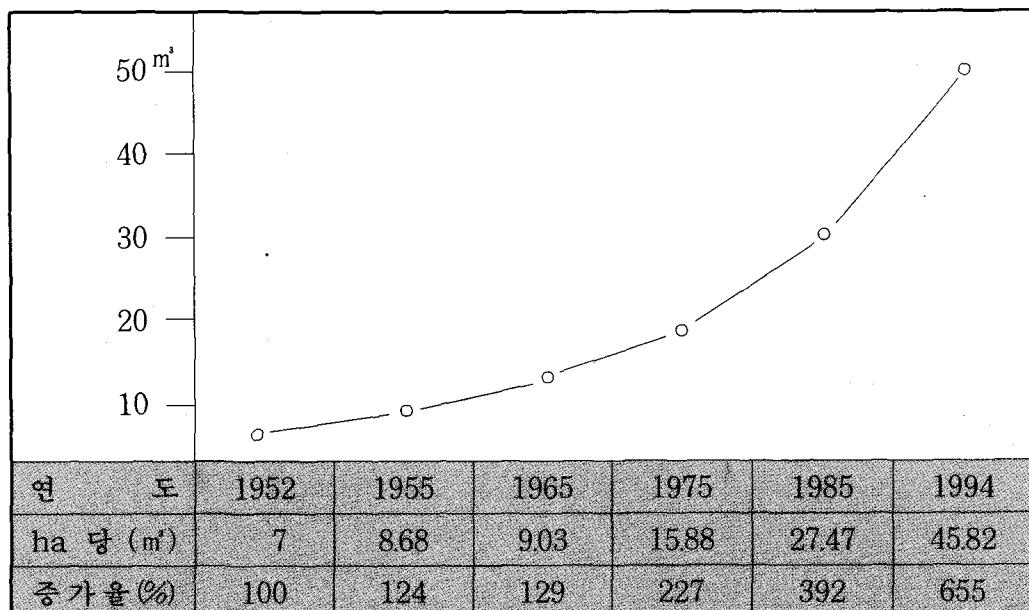
- 이와같은 산림황폐로 1910년 ha당 임목축적이 43m³였으나 1952년에는 7m³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해마다 흥수로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농경지 유실과 산사태 등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2. 치산녹화기 (1954~1987)
 - 정부는 하루속히 헐벗은 국토를 녹화시켜야 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국민식수운동을 전개 2차에 걸친 치

산녹화 10년계획 ('73~'87)을 수립 추진, 100억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황폐지 733천 ha의 사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국토녹화를 이루하였다.

3. 기반조성기 (1988~1997)

- 역사적인 국토녹화를 바탕으로 1988년부터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가 8차년 도를 맞이하였다.

임목축적변화



- 지금까지 단순한 조림·육림등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임업을 임산물가공·유통, 산림의 휴양자원등 2,3차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임도망의 확충 및 임업기계화촉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한편, 전국토의 65%인 산지를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시켜 산림·산주·산촌이 공존하는 광역산림경제권 형성을 추진중에 있

다고 밝혔다.

◎ 미래 50년

- 산림청은 특히 '95년을 산림행정개혁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기구와 인력, 산림관계 각종법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국토의 65%인 산지의 이용·관리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산지이용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산지 이용체계 재편작업을 연말까지 마무

리 하겠다고 밝혔다.

- 이밖에 집약적 산림경영체제로 전환, 임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전국의 27개 주요산별로 권역을 설정 종합시범산림사업 추진, 간 선임도망 (幹線林道網)의 확충으로 지역간 연계도로로 활용케함으로써 임산물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 주요 거점지역에 대단위 임산물종합처리장을 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 지역 정주생활보장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의 확대추진, 산촌소득 착목의 지속적인 개발 및 자연휴양림의 확충 및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 강원도 운두령지역과 지리산지역을 광역산림경제권으로 조성하며,
 - 깨끗한 물 공급과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강, 낙

동강등 5대강유역 산림 120만 ha를 특별관리권역으로 지정 수원함양 기능이 높은 수종으로 대체하고, 사방댐과 저수댐을 조성하여 깨끗한 물의 공급기지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

- 또한 도시, 공단지역의 대기오염을 완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밀식된 나무를 숙아 이식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주요산림시책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서 2040년대에는 우리나라 산지가 기능별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국토의 모습은 푸른숲에 둘러쌓인 쾌적한 도시, 경제림이 울창한 농산촌으로 탈바꿈되어 독일, 일본등 선진임업국 수준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의 산림의 모습

- 전국 산림은 경제림위주로 조성되고 임목축적이 증대되어 목재자급율은 크게 높아질 것임. $\frac{'92}{31}$ $\frac{'98}{34}$ $\frac{2040}{50}$
 - 인공조림율 (%)
 - 임목축적 (m^3/ha) 42 59 135
 - 목재자급율 (%) 12 16 60
 - 산림의 공익기능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임
 - 공익적가치 : $\frac{'92}{27조6천억원}$ $\frac{2040}{80조4천억원}$
 - 경영기반이 완비되어 임업도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촌의 실질적 소득이 보장될 것임 $\frac{'92}{48}$ $\frac{'98}{18}$ $\frac{2040}{56}$
 - 임도연장 (천 km) 825 1,090 12,720
 - 임업생산액 (10억 원)